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0호 [루계 제25028호] 주제 104 (2015) 년 9월 7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끌까지 완성하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남포시에 높이 모시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  
이 받들고 조선속도창  
조의 불길드높이 당창  
진 일흔돐을 혁명적대  
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  
치고있는 격동적인 시  
기 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남포시에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6일에 성  
대히 진행되었다.

제막식장에는 남포시  
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  
나는 항구문화도시로  
꾸려주시기 위해 불면  
불휴의 로고와 온갖  
심혈을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이 끓어넘쳐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절제히 판결하자!』 등  
의 구호관들이 세워져  
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 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특기한 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는 우리 모두는 절세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혁명의 풍속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보시고 살며 투쟁해온 크나큰 영광과 공지를 다시금 절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들이켜보고 있다며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연설자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신군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일蹶세우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파 국가, 당군, 남부주체 책임임원들이 하였다.

제막포들이 벗겨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친히 빛을 뿐이었다.

한명곡이 울리는 가운데 풍물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수많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의 하늘과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통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남포시인민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정정되었다.

이어 남포시내 당, 청전기관, 근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땅에 대한 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써여져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삼아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 위원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백두산질세위인들의 밤자취가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을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  
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대한 파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백두산  
대국의 영원한 영상으  
로 심장깊이 간직하고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전개해 용호하고  
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갈때 대하여 그는 언  
급하였다.

그는 시안의 모든 일  
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  
들이 선군조선의 운명  
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순결한  
탕평과 도덕의 리로 충신파  
반들며 천검만검의 성세,  
방폐가 되여 결사옹위하여  
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에 국주의를 실  
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부강하고 문명  
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 훈장을 창조하며  
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  
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천리마제강련합  
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  
합기업소, 금성드라마  
로령장, 강서란팡 등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  
상화하고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농민생산 목표를 기어이  
충신파하고 시속이원, 애육원  
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끌끔으로 력적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벗어나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의 두리에 굳게 웅쳐 강성국가건설과 주체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때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  
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들의  
동상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